



예수병원-바탕방 신학교, 업무 협약

예수병원과 캄보디아 바탕방 신학교가 최근 예수병원 비서실 회의실에서 상호 인적자원의 교류, 공동 연구 활동,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해외선교 봉사 및 연구, 정보교환 등 발전을 위한 협력, 해당기관의 인적, 재정적 논의에 의한 정기적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바탕방 신학교는 재학생 50명 규모로 12개 교회개척,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봉사활동 등으로 캄보디아 바탕방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익산경찰, 6개 기관과 코로나19 검사절차 개선 협약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 20일 경찰서장실에서 현재 일선 치안현장에서 발견한 코로나 19 의심 고열 대상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검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보건소, 익산소방서,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익산원예농협 등 6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여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임성재 경찰서장을 비롯해 한명관 보건소장, 전미희 소방서장, 김준은 원광대학교병원 부원장, 신상훈 익산병원장, 김봉하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찰관실에서 요청한 고열 대상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검사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익산원예농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익산시보건소를 경유해 보건소에서 지정한 원광대학교병원 또는 익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고열 대상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사회적이기금으로 지원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수재민들에게 작은 위로 되었으면”

남원 폭우 피해 지역민 지원기탁 줄이어

남원시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기탁 및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의 제일건설(회장 윤여웅)은 남원지역 수재민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성금 3,000만원을 쾌척했으며, 윤 회장은 “전북 기업인으로써 해야 할 일이라며, 도움이 절실한 수재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시의회도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에게 쉼달라며 성금을 남원시에 기탁했으며, 양희재 의장은 “내 고장 남원에서 호우 피해 소식을 듣고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모았다”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기원했다. 남원 새매 용복중에서는 바자회 수익금과 심사일반모은 성금 65만원을 전달해 왔으며, 전남 곡성의 천일자동차운전학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남원시대한노인회, 전북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각 100만 원을 전달해 왔다. 지역사회에서도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호남스틸(대표 김인권), 남원소재 숲 불림장과 대명창호에서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남원 동북교회와 안숙선 명장, 남원명예시민 박경호씨 등이 각 5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남원시연합회에서 400만원, 남원(주)재성에서 300만원, 인천계양시경경찰에서 200만원,



(사)한국부인회 남원지회, 전주효자추모관, 익명의 기부자, 씨비앤씨,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향후 재해구호 물품지원과 수재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현재 남원지역 피해 이재민에게 기부된 성금은 29건 2억9,000만원, 후원물품은 159건 5억6,900만원 등이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폭우 피해가 크지만, 기업과 사업체, 개인 기탁자들까지 모두가 다 같이 수재민들의 고통을 공감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수재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성수면 재경향우회, 수재의연금 900만원 전달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은 20일 재경향우회장회원과 고향사랑회원이 면사무소를 찾아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을 위해 쉼달라며 성금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모일 재경향우회장과 회원, 이기호 성수면장, 이우규 진안군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모일 재경향우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향주민들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의연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이재민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비전대, 휴먼컴퍼지트와 '인력양성' 산학 협력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주)휴먼컴퍼지트(대표이사 양승운)와 채용 연계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먼컴퍼지트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박창열 취업지원처장, 박동규 교수, 이춘태 교수, 김태환 공장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산업수요에 맞는 첨단 제조기술관련 인력양성과 전문 직업기술 교육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 자유무역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 업체인 휴먼컴퍼지트는 국내 풍력 부품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토종기업으로 블레이드 제조에 탄소섬유와 TBC(Torsion Bending Coupling) 기술을 적용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글로벌 풍력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순창 수해피해지역 찾아 봉사활동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근 유례없는 폭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부위원들과 교직원 등이 순창군 금과면을 찾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대의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지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함이다. 이날 전북대 구성원들은 집중호우로 엉망이 된 딸기밭의 토사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한편 전북대 교직원과 별도로 학생들도 이 행사에 동참했다. 전북대 제52대 총학생회 학생들 역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 주천면과 금지면 일원을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은성 기자



고창 무장면 재성건설, 수해피해 복구 참여

고창군 무장면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겪은 무장면 수해복구를 위해 인력, 장비 등 지원에 전력을 쏟고 있다. 고창군 무장면은 20일 재성건설(대표 조진기)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수해지역을 찾아 자사 장비(덤프트럭, 포크레인)를 동원해 침수지역 피해복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진기 재성건설 대표는 “직접 와서 현장을 보니, 피해 복구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다.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실천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 훈련

익산소방서가 화재 골든타임을 사수하고자 삼승 정체구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소방차 출동률 확보와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긴급 소방차량 양보 등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익산소방서는 20일 영등동 일대, 주요 시장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각 관할 센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긴급 차량 출동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부안소방서 '화재오인 행위시 사전 신고해야'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감염병 방지를 위해 방역 등을 위한 연막소독 등을 자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할 경우 이를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게 되면 소방차기 출동해, 정작 다른 곳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119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차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연막소독 등에 따른 화재오인출동 건수는 부안군 7건이다. 구창덕 서장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 포함) 또는 서면(팩스)로 부안소방서로 사전에 신고해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대-캠텍종합기술원, 드론산업 선도 협력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본관에서 (사)캠텍종합기술원(원장 노상홍)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드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축구 중주위의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전주대와 캠텍종합기술원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 분야의 공동 기술연구와 전문 인재 양성 등 드론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도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대학드론축구대회와 2025년 전주에서 개최하는 드론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드론 관련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액티브엔택트 상담 실시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여름방학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액티브엔택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차로 진행된 액티브엔택트 상담은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각 학부(과)의 협조 아래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진로·취업에 대한 애로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소방안전학과 외 2개 학부(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상담내용은 취업지원실 프로그램 안내, 백인백색HOPE 장학제도 안내 등이 주로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 인사 ◀◀

전북도청 ◇과장급 승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박우석

◇팀장급 승진 ▲인재개발원 안동숙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6	진안지사 433-3064
호지지사 010-8645-9935	010-2333-4791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호지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668-9923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22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가겠습니다. 환자경험 중심의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가져 받았으니 가져 줄 수 있게 하옵소서」 1897년, 예수병원 제1대 병원장 마더 잉골드 일기

5987 전북 전주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 : 063.230.8114 고객센터 : 063.230.8181/8196 응급의료센터 : 063.230.8282